

敗戰하자 참호몰아넣고 爆死

발...만행...비참한 최후 증언

10~

1월 14일... 우익... 토나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

태평양전쟁 당시 日帝가 한반도 전역에서 여자학교 생들까지도 조직적으로 정신대로 징발해간 사실은 유국민을 분노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6일 현재까지 전국의 각 국민학교에서 확인된 국교정신대원 99명의 학교부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침략전쟁에 끌려간 일제의 정신대 징발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징발대상 정신대 기일은 1944년 7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로 정해졌다. 이 기간에 징발된 정신대원은 15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0만 명은 중국, 5만 명은 일본, 5천 명은 조선에서 징발되었다. 이 중 10만 명은 중국, 5만 명은 일본, 5천 명은 조선에서 징발되었다.

열두세살 안팎인 이들 어린 학생들은 그로정신대로 15세 이상의 미혼녀들은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다. 또 그로정신대로 끌려갔던 어린 소녀들을 일부는 나중에 중군위안부로 재차 출되기도 했다. 昭和19年(1944年) 7월 16일 서울남산국교 6학년



선인 근로정신대원들. 모두가 열두세 동아 1992. 1. 16

에 재학생 정신대로 발령된 한 소녀는 일 전上海에서 유치원을 냈던 부친의 고명딸이었다. 명량한 성격으로 5연속 계급장을 받았던 모범생은 '살도 찌고 키 커진' 6학년 때 일인단원 사에 의해 '유악' 일본군(皇軍)을 위한 정신대 선병되었다고 적혀있다. 이들 학생들의 부모, 미곡상 전도사들 대부분 중산층으로 자녀교육에 큰 열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징발수법 정신대로 고가기 위해 일제는 유악 설득, 협박, 자의의 모든 방법을 망라하지 않았다.

일제인 교사들이 대상생의 가정을 방문, 『조선서보』나 일간지서 공무하 것이 더욱 장래성이 있다. 『일간지』면 꽃장이나 고쳐주거나 영접주거나, 내의 장모이별과 민족혈통 학부모를 자는 하거나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징발대상과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1944년 이후에는 유악을 통해 징발된 경우가 많아졌다. 유악을 통해 징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중산층으로 자녀교육에 큰 열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신구 醫學博士 김지공 氏의 遺稿 醫學博士 김지공 氏의 遺稿

『조선서보』면 꽃장이나 고쳐주거나 영접주거나, 내의 장모이별과 민족혈통 학부모를 자는 하거나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 징발대상과 방법도 다양해졌다. 특히 1944년 이후에는 유악을 통해 징발된 경우가 많아졌다. 유악을 통해 징발된 학생들은 대부분 중산층으로 자녀교육에 큰 열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